



1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APEC성공개최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이승협 경상투데이 대표를 비롯한 추진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풍성한 정책 지원에 몸 불리는 '대구중소'

시, 중기부 지원 예산 312억 확보  
올해 성과로 내년도 3배 증액  
신규 인력 채용·용자 지원 박차  
26일까지 참여사 8곳 추가 모집

대구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1.0' 사업으로 추진하는 'ABB융합 로봇SI 제조혁신' 프로젝트에 2025년 기업지원 예산으로 국비 312억원을 확보했다.

3년간(2024-2026년) 추진되는 동 프로젝트는 올해 3월 78개 사의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중기부의 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정책자금, 스마트공장 등의 핵심 정책수단과 시제품제작 등 지역 주력사업 육성사업으로 약 100억원을 지원, 한 해 동안 1개 이상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돼 수혜 받은 기업은 50개 사로 전체 기업의 64.1%에 해당하는 높은 실수혜율을 나타냈다.

로봇SI 산업 생태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제조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본 프로젝트는 올해 추진한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에는 전년 대비 3배가량 증액된 312억원의 지원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오는 2025년에는 기존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신규 인력 채용 지원 및 기술보증기금(용자) 등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화돼 참여기업들에게 맞춤형으로 정책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로봇 연관 기업들의 프로젝트 참여 의사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참여기업 8개 사를 추가 모집한다.

대구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1.0' 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주관기관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추가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정평가 과정을 거쳐 참여기회를 얻게 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6일까지로 이와 관련한 설명회는 15일에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강두용 기자 kwondrumkakao@daum.net

## 경북도·경주시, APEC 성공 위해 함께 달린다

추진위 출범, 8개 분과로 운영  
24개국 정상·기업인 2만명 전망  
안전 대책 등 다방면 신속 지원  
SMR·ICT·반도체 등 산업 홍보  
경북 관광 르네상스 시대 열어

경북도는 성공적인 2025 APEC 정상회의를 위해 1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APEC성공개최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지역 주요 기관 대표와 경제인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APEC 준비 상황 보고, 위촉장 수여, 성공개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출범한 APEC성공개최추진위원회는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기관장을 비롯해 경제, 문화, 언론 관련 대표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세부적으로 △시·도의회 △정부 기관 △소통협력 △경제 △문화·관광 분과 △언론·홍보 △의료·교육 등 총 8개 분과로 운영된다.

위원회의 기본 역할은 △APEC 성공개최의 기본방향 설정 및 제시 △APEC 준비 상황 평가와 현장점검, 주요 사안 자문 △APEC 추진 관련 각급

기관과 단체 간 유기적 협력 주도 등으로 오는 2025년 1분기부터 매 분기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1989년 11월에 창립된 APEC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로서 현재 2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다자간의 무역체제 강화와 역내 기업활동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APEC은 세계 GDP의 62.2%, 총 교역량 50.1%를 점유하고 있는 최대의 지역 협력체다.

APEC은 정상회의, 최고고위관리회의, 외교통상각료회의가 공식 행사로 열리고 이밖에 APEC고위관리회의, 기업인자문회의(ABAC),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도 함께 진행된다.

내년에 경주에서 개최될 APEC에는

21개 회원국 외에 2-3개 초청국의 정상, 기업인 등 총 2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SMR(경주), 이차전지, 로봇(포항), ICT, 반도체(구미) 등 경북의 신산업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APEC성공개최추진위원회 또한 경제분과를 구성해 APEC과 지역산업을 연계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역사 문화 도시인 경주의 강점을 살려 경북관광의 르네상스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치안, 교통, 대테러, 의료 등 안전대책과 국제적 수준의 글로벌 시민의식 향상, APEC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성공적인 APEC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APEC성공개최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경북도와 경주시, 성공개최추진위원회가 긴밀히 협조해 지역이 글로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출범식 행사 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들은 APEC준비지원단(경주진속공예촌에 위치)으로 자리를 옮겨 현판식을 열었다. 지난 9월 23일 공식적으로 조직된 경북도 APEC준비지원단은 김상철 단장을 필두로 4개과 13개 팀 55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허리띠 졸라맨 경북교육청, 미래 교육 '과감 투자'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5.6조 편성 제출

경북교육청은 2025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633억원이 늘어난 5조6174억원으로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세수 결손과 고교 무상교육,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의 일몰 등의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와 디지털 교육, 교육복지 등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또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시기, 집행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족한 재원은 자체 적립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920억원을 활용해 내년도 경북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유사·중복되는 목적사업비를 통합하고 일부는 기본 운영비로 전환함으로써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업무 경감을 도모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고 2023년 주요 재정사업 자율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경북교육청은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자 주도형 교육과정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힘이 되는 미래교육 △교육공동체 회복과 조화로운 성장 지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능동적·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뒀다.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자 주도형 교육과정을 위해 총 516억원(△드림학교, 기초학력 오픈학교 등 기초학습 부진 학생 책임지도 76억원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14억원, 고교학점제 95억원, 교과교실제 87억원 △따뜻한 행복학교 26억원, 놀이중심교육과정 43억원 등)을 편성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힘이 되는 미래 교육 추진을 위해 총 3948억원(△AI 디지털교과서 구매비 87억원 △전자질판 113억원, 컴퓨터 165억원, 학생스마트기기 96억원 등 학교정보화장비 보급 520억원 △디지털온선도학교, 찾아가는 학교 연수 등 스마트교육 190억원 △그린스마트스쿨 1426억원, 학교

신증설 1515억원 등)을 편성했다.

교육공동체 회복과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총 5109억원(△교육활동동보호센터 운영 등 교원 보호 10억원, 학생마음건강지원 6억원, 가정형 Wee센터 운영 6억원 △무상급식 식품비 1623억원, 급식운영비 150억원,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97억원 △누리과정비 1554억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 459억원 △특수교육 학생 치료 및 통학 지원 등 특수교육 복지 및 운영 441억원 △한국어교육센터 운영 등 다문화 교육 53억원 등)을 편성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능동적·선제적 대응을 위해 총 1255억원(△늘봄학교 운영 714억원, 거점형늘봄센터 28억

원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245억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100억원 △유보통합 21억원 △교육발전특구 2억원, 자율형 공립고 31억원, 경북미래교육지구 40억원 △학교복합시설 3억원, 온라인학교 7억원, 해외 우수유학생 유치 6억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 20억원 등)을 편성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학교 현장 지원과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제35회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다음달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제1경 | 성주가야산

제2경 | 특용산성 성주호물레길

제3경 | 최연서원과 무흘구곡

제4경 | 만귀정과 포천계곡

제5경 | 성밖숲

#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걷고 싶은 성주

가야산부터 성주참외하우스까지 10개의 장관, 그래서 오늘도 성주에 갑니다

제6경 | 세종대왕자태실

제7경 | 한개마을

제8경 | 성주역사테마공원

제9경 | 성산동 고분군

제10경 | 성주참외하우스 들녘

성주는 **즐겁다!**

# 경북TP, 청년CEO 키운다더니 매출은 '0'

도 기획경제위, 행감서 송곳 질의  
육성사업 실적 저조 후관리 당부  
산하 센터·이사회 구성 지역 쏠림  
모호한 센터 기능·역할 정립 촉구  
해마다 감사 지적 내용 도돌이표  
체계적 관리방안·의회 소통 주문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8일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별로 균형 잡힌 사업 추진과 기관 통합에 따른 시스템 체계화 및 집행 효율성 제고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한편 수감자료 부실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미흡에 대해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김창혁 의원은 “경북 청년CEO 심화 육성 지원사업 실적에서 1500만원을 지원받은 업체의 매출이 30만원에 불과하고 심지어 매출이 0원인 업체도 발견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후 관리에 집중해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기관 통합으로 조직이 비대해지면 보고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흐르기 쉽다”고 꼬집으며 조직 운영 효율화와 안정된 보고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김홍구 의원은 “사업 대상 소재지를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 대한 쏠림이 심해 설립 26주년을 맞은 경북테크노파크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고 지적하며 “도내 각 시·군에 대한 맞춤형 연구 소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선하 의원은 “당초 경북하이브리드

드부품연구원과의 업무 유사성이 있다 할지라도 두 기관의 통합에 따라 필연적으로 업무 복잡성과 보안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하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각도로 꼼꼼하게 점검해 기관 통합에 따른 내부 저항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내부 감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감사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상임 감사 선임을 통해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구 의원은 두 기관의 통합 과정에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한편 테크노파크 산하 센터 등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으며 이사회 구성에도 지역 쏠림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경북테크노파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내 모든 시·군의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적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식 의원은 “신규 연구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노후 장비가 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하며 “노후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선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기관 통합 이후 원내 조직개

편과 인사 체계에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타성으로 유지해온 조직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경영과 연구 파트 각 분야에 적합한 전문가를 투입해 조직이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 의원은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 등 기술·연구 지원과 무관한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테크노파크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기관 본연의 목적과 특화 분야에 맞는 업무를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익계약 건수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태림 의원은 “신규 센터 설립과 같이 중요 사안과 관련한 사업 및 지역 선정 과정에서 의회 보고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있어 절차적 합법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명강 의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연구 장비를 갖추고도 장비 가동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장비 대여 및 연구 기술 이전 등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실적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관리자급 간부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이 낮는데 여성과학기술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시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주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같이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업 구조에 적합한 지원 전략을 마련해 지역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 ‘청년 지원’과 ‘청년의 창업지원’ 사이에서 뚜렷이 구분 짓지 못하고 사업 추진 목표에 모호한 점이 눈에 띈다”고 지적하면서 “객관적인 성과 평가 결과 미진한 사업은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시스템을 갖춰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며 “사업명에 동떨어진 포괄적인 범위 설정과 단순 성과 부풀리기를 위한 끼워넣기식 사업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 위원장은 경북테크노파크 센터별별 인력과 기관운영에 관리체계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14개의 센터에 대한 기능과 역할 등을 재점검하고 도민들이 어떤 센터인지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기관들이 통합되면서 센터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 인력 및 자원 효율화라는 통합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있음을 질책했다.

또한 테크노파크 이사회 규정에 위임한 의결사항을 이사장에게 다시 결재를 받게 하는 등 이중 승인절차가 운영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했다.

총평을 통해서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내용을 지적받으면서도 개선이 없어 피감기관으로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감사 지적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 의회와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경주시의회, 286회 임시회 알찬 마무리 민생 경제 밀착 조례안 21건 심의·의결

경주시의회는 지난 8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일정을 마쳤다. 본회의에 앞서 김소현 의원이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청소년 미래재단 및 국제학교 설립’을 주제로, 최영기 의원이 ‘우리 지역 축제의 문제점과 시민 참여 축제로의 전환’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6건의 의원 발의를 포함한 13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안 등의 의안이 상정된 가운데 2건(‘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됐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채택됐다. 이동협 의장은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곧 골리게 될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오는 28일에 2024년의 마지막 회기인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칠곡군의회, 영농현장 애로 해소 ‘솔선수범’

칠곡군의회가 지난 8일 ‘자원봉사 릴레이 바통 터치 운동’의 일환으로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군의회 의원 10명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명면 봉암리 농가를 방문해 콩 수확 및 타작 작업을 하는 등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이상승 의장은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게 됐다”며 “칠곡군의회는 앞으로도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농업인과 소통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 발로 뛰는 영천시의회, 축사 약취 대안 모색

영천시의회 축사약취방지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축사특위)는 지난 5일과 6일 지역 내의 3개 축사 현대화시설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현대화된 축사시설을 방문해 주요시설 현황과 약취저감 방안을 점검·확인함으로써 의회 차원에서 축사 약취 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지난 5일 청룡면·북안면에 위치한 2개 농장 견학, 이 곳 농장들은 각각 8500두와 30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축사약취 저감을 위한 액비화시설, 바이오커튼, 세정식탈취탑, 고액 분리기 등의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어 2018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됐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또한 6일에는 상주시 내서면에 위치한 농장을 방문, 이 곳은 총 3000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으로서 완숙된 액비를 돈사 하부의 슬러리피트로 매일 주기적으로 순환해 돈사 내 약취 제거 및 사육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GPB 액비순환시스템을 가동 중인 곳이다. 의원들은 현대화된 축사시설이 설치되면 약취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설투자는 농가의 경제적 여건과 보조금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인만큼 민관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문 위원장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축사약취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 ‘기용아재’ 한복 벗고 소방복 입는다

경북소방, 한기용 홍보대사 위촉  
친근한 이미지, 다양한 활동으로  
안전문화 확산·인식 제고 기대감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8일 포항에 있는 티파니웨딩 5층 컨벤션홀에서 방송인사로 활동하는 한기용씨를 소방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소방홍보대사로 위촉된 한기용씨는 다재다능한 방송인으로 TBC ‘싱싱 고향별곡’ 프로그램을 17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친근하고 구수한 이미지로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경북소방본부와 한기용씨는 이번 소방홍보대사 임명을 계기로 소방 안전 문화 확산과 소방의 이미지 향상 등 보다 많은 도민이 소방 안전에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한기용씨는 “방송일을 하면서 17년간 같은 한복을 입고 활동하며 항상 마음가짐과 언행에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왔다”며 “이제는 소방공무원 제복을 입게 돼 무게감을 느낀다. 희생과 봉사에 힘쓰는 소방관을 위해 홍보대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성열 본부장은 “그동안 각종 봉사 활동 등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방송인 한기용씨를 경북소방본부 소방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기쁘다”며 “안전 문화 정착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힘이 돼달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상투데이 캠페인

## 저출산 극복

### 경북형 새날봄

<p><b>조기퇴근 돌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MOU)</li> <li>근로자 임금 보전</li> <li>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li> </ul>	<p><b>학교 돌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최초 교육청·도협업모델</li> <li>거점형 돌봄센터 구축</li> <li>AI 기반 돌봄 순환버스 운영</li> <li>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li> </ul>	<p><b>심야 돌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돌봄 서비스</li> <li>24시 어린이집</li> <li>아픈 아이 긴급 돌봄</li> <li>24시 응급치치 편의점</li> </ul>
--	---	---

▶ 온종일 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 ◀

저출산 극복에 경주시 골프협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 민자 활성화로 '경북에 새 활력' 불어 넣는다

### 도, 상주시와 '투자펀드 간담회' 전문가 초빙, 사업 구상안 논의 경전대 개발 공공·민간 협력 강조

경북도와 상주시는 8일 상주시청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시·군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전문가를 초빙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구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해 민간 자원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전대 관광 개발을 위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의 활용 방안이 검토됐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민간자본과 공공자본의 협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경전대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상주시는 해당 지역을 개발하는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안정



성을 높이는 전략을 강구했다.

이날 논의된 부지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활발히 이뤄지는 중심지이자 상주시의 대표 관광코스가 있는 곳으로 낙동강이 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도남서원, 계절마다 새로운 자연 생태계를 만날 수 있는 경천섬, 상주보수상레저센터 등이 있다.

이 지역에 호텔·리조트 등의 관광클러스터가 자리 잡는다면 기타 관광객이 연계돼 방문객들에게 더 풍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2030년 개통 예정인 KTX 상주역은 서울에서 상주까지 77분 만에 도달할 수 있으며 중부내륙, 당진~

상주·영덕, 상주·영천 고속도로 등 3개의 광역망과도 연결돼 대한민국 중심부에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이러한 교통망과 관광자원의 융합은 상주를 경쟁력 있는 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상주시 경전대 관광 개발 사업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방안이 중요한 성공 요인임을 강조하며 지자체와 민간이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투자와 지원을 통해 대규모 민간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북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자체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주시는 낙동강

권역을 대표하는 농어촌 관광 휴양 시설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이며 지역 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영석 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주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며 "민간의 사업성이 부족하고 재정 지원이 미흡해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한 시·군의 숙원 사업들을 이제는 투자펀드를 통해 실현해 나가겠다. 경북도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상주의 남영숙 도의원은 "상주시의 발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전대 관광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도, 준비지원단과 APEC성공 개최 '총력'

### 현판식 진행... 본격 업무 돌입 관련 시설 개보수, 홍보 노력

경북도 APEC준비지원단은 11일 현판식을 열고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 박성만 도의회 의장, 주낙영 경주시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APEC준비지원단은 정상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 개·보수, 교통, 숙박, 의전, 홍보에 이르기까지 행사의 전반적 준비와 지원을 위해 최일선에 나선 선봉장 역할을 한다. 또한 관련 중앙부처나 관계기관

과의 협조나 지원에 관한 소통 창구이기도 하다.

주낙영 시장은 "260만 경북도민의 하나 된 힘으로 유치한 APEC을 이제는 성공개최로 보답해야 할 시기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APEC준비지원단은 사명감과 자부심을 품고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월 27일 경주가 개최 도시로 확정되고 난 후 7월부터 준비지원단 TF팀을 운영했다. 9월 4개 과 13개 팀으로 APEC준비지원단이 정식 출범했으며 경북도 공무원과 경주시 공무원이 함께 APEC을 준비하고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경북문화관광공, 더 쇼! 신라하다 '큰 호응'

### 27회 차 공연 성료... 1만명 관람

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9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문무홀에서 열린 '더 쇼! 신라하다' 27회 차 공연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종영했다고 밝혔다.

'더 쇼! 신라하다'는 지난해 초연 이후 더욱 새로워진 무대와 업그레이드된 작품성으로 관객 1만2786명을 기록하며 2년 연속 1만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다.

실감 나는 영상과 조명, 디테일을 살린 의상과 소품은 물론 대본 수정과 신규 멤버 추가 등을 통해 공연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특히 '승만 공주'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린지는 신규 멤버 '정답 없는 것을'을 감성적인 연기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완벽히 소화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린지는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에 제 목소리를 더할 수 있어 너무나 큰 영광이었다. 이 곡이 많은 분들께 닿아 힐링과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린지의 '정답 없는 것을'과 남경주의 '마음을 신는 일'은 국내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곧 발매될 예정이다.

올해 공연에는 기존 출연진뿐만 아니라 새로운 배우들이 합류해 신선한

케미와 시너지를 보여줬다.

예술감독과 배우 역할을 모두 수행한 남경주는 "올해도 '더 쇼! 신라하다'를 사랑해주신 경주 시민들과 공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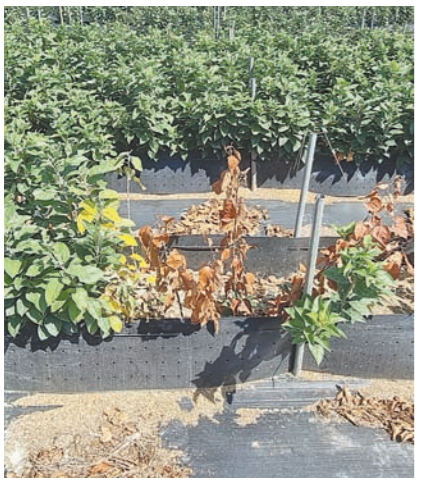
이번 공연에 새롭게 합류한 배우 오만석은 "신비로운 인물 '밀본'과 함께 신라시대로 여행을 함께 해서 즐거웠다. 또 기회가 온다면 더 많은 여행을 함께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공연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월성원자력본부가 문화 취약계층 아동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공연을 관람하는 등 경북 지역 사회와 함께 했다. 또한 경주, 포항 등 인근지역 학생 단체 관람이 이어졌으며 일본, 중국 등 해외 관객들도 공연을 찾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했다.

김남일 사장은 "신나는 쇼의 세상에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덕분에 공연을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다"며 "2025년에는 경주 APEC 정상회의와 보문관광단지 50주년을 기념해 '더 쇼! 신라하다' 특별공연을 선보여 경북의 문화산업을 세계로 확장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wbaf12@daum.net

# 경북농기원, 사과 대목 줄기 마름증상 원인은 '흰비단병'



### 경산농기센터와 연구 통해 밝혀 줄기 아랫부분에 약제 집중 살포

경북도농업기술원은 경산농업기술센터와 공동연구를 통해 사과 대목 생산지에서 발생한 줄기 마름증상의 주요 원인이 흰비단병을 밝혀내고 이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병든 나무를 조기에 제거하고 약제를 줄기 아랫부분에 집중적으로 살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올해 5-10월 경산 묘목 특구 내 사과 대목 생산지에서 줄기가 말라 죽는 피해가 나타나 이를 조사한 결과 줄기 집단 마름증상의 주 원인은 흰비단병(Athelia rolfsii)임을 밝혀냈다. 또 10곳의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감염율은 2.5% 정도로 나타났다. 사과 대목에 발생하는 흰비단병은 균사가 지표면을 따라 확산돼 전염되므로 방제를 위해서는

동시 방제가 가능한 사과 등록 약제인 피라클로스트로빈(유제), 피라벤카브(액상수화제), 플루디옥소닐(액상수화제), 테부코나졸(수) 등을 대목 아랫부분에 살포해야 한다.

약제를 살포하지 않은 곳이나 입제를 뿌린 곳에서는 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대목 생산지에 줄기가 말라죽는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병든 나무를 뿌리까지 신속하게 제거한 후 줄기 아랫부분(지제부) 위주로 약제를 집중적으로 살포해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교육청, 5년 연속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 '전국 1위' 박수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최종 취업률 69.5%(전국 평균 55.3%)를 나타내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직업계고 취업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ODB)와 연계, 해마다 4월 1일 기준으로 직업계

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은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최고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은 29.6%(전국 평균 48.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 경북의 직업계고가 '취업과 기능인 양성'이라는 직업교육 방향에 맞게 관련 분야에서 취

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의 비결은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시대 변화와 수요자 요구에 맞춘 직업계고 재구조화 추진 △10차 산업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 산업사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융합인재 양성 △지역 특색사업인 경북형 도제 사업으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취업 교육과정 운영 △직업계고

혁신지구사업을 통한 지자체 협력 교육 모델 마련으로 가능했으며 그 중심에 경북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률이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산업 수요에 맞춘 일자리 발굴과 체계적인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우수 기능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수산물특화! 참바다맛! 경주바다**

경주농수산물공동브랜드  
**경주이사금**

ESAGEUM  
경주이사금

# 포항시, 기록적인 한파 예보에 시민 안전 관리 '더 탄탄하게'

대설·한파 대비 대책 회의 개최  
피해사례 분석 사전 예방 '최선'  
겨울철 재난대책 추진계획 공유  
월동 난방비 지원·한파 쉼터 운영  
긴밀 협조로 위험징후 조기 차단



포항시는 11일 장상길 부시장 주재로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갖고 겨울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설과 한파 피해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다수 발생하는 만큼 이전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피해를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대책회의에서는 도로시설과 등 13개 관련 부서 및 해병대 제1사단 등 8개 유관기관 등 총 21개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해 겨울철 기상 전망에 대해 공유하고 각 부서와 기관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시는 이날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계속되는 '겨울철 자연 재난 집중 대책 기간'에 '겨울철 재난대책 추진계획'을 관계기관과 공유해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

올해는 기후변화가 일상화되면서 대설, 한파 등 예측 불확실성으로 기상특보 발령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기록적인 한파가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시는 취약계층·시설에 대한 피해 예방 강화, 대국민 집중 홍보 실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총괄 대응을 위해 계량기·수도관 보온 조치 및 농축수산 시설 사전 점검 및 피해 예방조치 강화를 실시한다.

또한 겨울철 취약 계층인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고 한파 쉼터 619개소 운영·점검 및 스마트 버스승강장의 방풍 시설 등 한파 저감시설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시간 기상정보 및 제설·통제·피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으로 겨울철 행동 요령을 시민들에게 전파해 대국민 집중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절벽 취약 구간인 고갯길, 도로 등은 제설제를 사전살포하며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생활 필수시설인 가스, 상수도, 전기 등에 최우선 복구를 추진해 가용 인력·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제설작업 및 시설복구를 지원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유관기관과 현장부서 간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해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으로 선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상길 부시장은 "올해 기록적인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 인명·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며 "시민들은 강설 및 한파가 예상될 때에는 위험 지역에 대한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

## 안동 농기센터 종합감사서 행정적 부적정 처리 다수 확인

시정 4건·주의 12건 총 16건 지적  
시간외근무일수 착오 산정 인한  
수당 과지급·미지급 사례 적발 등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행정적 부적정 처리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올해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됐으며 지난 2021년 3월 이후의 업무 전반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다.

이번 감사에서 총 16건의 행정적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으며 시정 요구 4건

과 주의 요구 12건이 포함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산정, 공용차량 운행 기록 미비,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부적정 등이 있었다.

특히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과정에서 휴가 및 대체휴무자의 근무일수가 착오 산정돼 수당이 과지급 또는 미지급된 사례가 적발됐고 공용차량 운행 시 배차신청 및 운행일지 작성이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시에도 행사계획서 및 참석자 서명부 등 객관

적 증빙자료 없이 집행된 사례가 지적됐으며 임차차량 수리비 지급 과정에서도 계약사항 확인 없이 예산이 낭비된 점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감면 처리의 부적정 사례도 포함됐으며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만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함에도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도 감면 혜택을 부여한 사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종합감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행정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편 김모(65·웅상동)씨는 "농기계 수리 부품대도 안동시 조례에 따라 징수해야 하는데 담당자별로 해석이 달라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각각이다"라며 일관성 없는 행정을 비판했다.

또 다른 박모(58·안기동)씨는 이번 감사 이외에도 "공사장산, 원가계산, 계약원가 심사 미이행 등 건설공사 관련하여도 규정에 따랐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oms7227@nate.com



## 공사장 비산먼지 폭탄에도 손 놓은 경주시

시공사 "잘못없다"며 책임 전가  
경주시 안일한 행정 처리 '눈살'

경주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흙먼지가 도로에 묻어 나와 비산먼지로서 인근 주민과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작 시공사는 잘못이 없다며 당당히 작업을 진행해 경주시 행정에 의문이 일고 있다.

11일 경주시 서면 조남 저수지 보수보강·공사현장에는 제방호환블럭을 쌓기 위한 준비 작업을 통한 제방을 중심으로 준설공사 한창이다.

준설토를 반출하는 저수지 뚝에는 살수차 및 세륜기도 설치하지 않아 작업차량이 묻어 나온 흙으로 도로가 오염되고 자동차가 지날 때마다 비산먼

지가 흩날려 주위를 뒤덮었다.

시민들이 도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과 관련한 문제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시공사 소장 A씨는 "저수지 아래 마을 주민이 흙이 필요하다 해서 주민이 도로 오염부분과 비산먼지 등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다"라며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경주시는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대기질 오염을 막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겠다고 연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방대책을 강조했지만 정작 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는 이에 대해 지켜지지 않고 있어 구호뿐이라는 지적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문경경찰서 "밤길 안전 지킨다!" 자율방범대와 야간 합동순찰

문경경찰서는 지난 7일 문경시자율방범대와 점촌역, 문화의 거리 주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활동과 함께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앞서 가을에 열린 축제장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한 경형성 문경자율방범대 연합대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대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가을철 수확기인 만큼 바쁜 일손으로 인한 감시 부재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시민대상 절도 범죄예방을 집중 홍보하고 편의점·무인업소, 여성안심귀갓길, 주택밀집지역 등 범죄취약지 위주로 순찰을 전개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 원자력환경공단, 경주 방폐장서 '첫 중준위 방폐물 처분'

모든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작  
연말까지 4100드럼 인수 예정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은 11일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에 위치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준위별 모든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의 처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연말까지 고리원전 500드럼, 월성원전 482드럼, 원자력연구원 678드럼, 한울원전 808드럼 등 중저준위 방폐물을 인수해 전년 대비 약 23% 증가한 4100여드럼을 인수할 예정이다.

조성돈 공단 이사장은 "국가 방폐물 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투명한 방폐물 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폐물은 농도와 발열량 등에 따라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방폐물로 구분되며 이번 처분한 중

준위 방폐물은 지난 8월 월성원전에서 인수한 것이다.

이로써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에는 준위별 모든 방폐물의 처분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구미시 고시 제2024-2685호

# 구미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구미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구미시장**

-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구미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 사업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관내
  - 사업규모 : 251.7km (139개소)
-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4년 11월 12일(화)~ 2024년 12월 11일(수)(공휴일·토요일 제외 21일간)
-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4년 11월 22일(금) 14:00
  - 장 소 : 선산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71-1)
-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및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까지
  - 제출방법 : 서면제출(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 도로철도과(☎054-480-5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람장소 : 구미시청 도로철도과, 선산읍 행정복지센터, 고아읍 행정복지센터,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무을면 행정복지센터, 옥성면 행정복지센터, 도개면 행정복지센터, 해평면 행정복지센터, 장천면 행정복지센터

#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건조벼 총 9326t 매입

경주시, 다음달까지 매입 진행  
전년 7295t 대비 27% 이상 증가  
가루쌀 첫 매입... 총 220t 물량

경주시는 11일 건천읍, 황남, 월성동을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올해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건조벼 총 9326t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량 중 산물벼는 3089t이며 건조벼는 가루쌀과 시장격리곡을 포함해 6237t이다. 이는 지난해 7295t에 대비해 27%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 경주시는 가루쌀 매입을 처음 진행한다. 가루쌀은 전량 건조벼



로 총 220t을 매입한다.

매입은 읍·면·동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건조벼를 매입하며 매입 품종은 건

조벼는 삼광, 가루쌀은 바로미2이다.

매입 대금은 올해 상향 조정된 중간정산금 4만원(40kg 포대 기준)을 수매

당일 우선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12월 중 매입 가격 확정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

한편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매입 품종 외 다른 품종을 출하하지 않도록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낙영 시장은 "어려운 쌀 생산 여건에서도 고품질 쌀을 수확해 수매에 참여하시는 농업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라며 "지난해보다 물량이 증가한 만큼 공공비축미 매입 준비에 철저를 기해 농가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양북초·중학교, 농어촌 학교 우수성 입증

교육부 주최 공모에 최종 선정  
지역 특성 맞춤 교육과정 '호평'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소재한 양북초·중학교가 교육부에서 주최한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11일 경주교육청에 따르면 양북초·중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한 사례로 높이 평가 받았다.

양북초·중학교(전교생 64명)는 작지만 행복한 학교, 매일이 행복한 학교, 스스로 꿈을 찾는 학교, 함께해서 행복한 학교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을 열어주는 통감자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의 기

초를 다지고 스스로 꿈을 찾는 학교를 위해 체험 위주의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교과와 연계된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과 적성을 발굴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줬다.

또 함께해서 행복한 학교의 일환으로 사제간, 교우간 관계형성을 위한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조재형 교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아스팔트 사이에서도 피어나는 민들레 꽃씨처럼 농어촌 작은 학교의 한계를 기회로 바꿔 나가는 계기로 학생들이 꿈을 찾아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따뜻한 행복학교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주낙영 경주시장 "직원 고충·애로사항 최대한 살피겠다"

운전직 직원과 소통 간담회 가져  
친근한 분위기 속 해결 방안 모색

주낙영 경주시장이 11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운전직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축산·수·환경 분야 직원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운전직 7급 이하 직원 9명이 참석해 주 시장과 점심을 먹으며 현재 근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직무역량 강화 교육 추진부터 선진적 견학, 체험형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건의했다.



주 시장은 행정 최일선의 운전 업무를 포함한 교통, 하수도, 청소차량 운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이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주낙영 시장은 "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통해 경주시의 손과 발인 운전직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직책과의 대화를 더욱 활성화해 직원 고충 및 애로사항을 최대한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내달 10일까지 136곳 사업장 모집

경주시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1일 경주시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5종 사업장으로 오는 12월 10일까지 접수하며 총 136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단 부착대상 시설의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착과 전송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모집 기간 내 시청 환경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054-779-63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 침체 및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탄소중립 선도도시 경주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월성본부, 미래 원자력 인재 양성 지원

동경주 지역 4개 초등학교 대상  
기초과학 원리 실습·실용 교육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동경주 지역 4개 초등학교(감포초, 나산초, 양남초, 양북초) 5·6학년생을 대상으로 '아톰공학교실'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11일 월성본부에 따르면 아톰공학교실은 다양한 과학실험과 실습을 통해 기초과학 원리를 배우는 수업으로 어린이들의 과학적 호기심과 창의성을 일깨워 미래의 과학 인재로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월성본부 대표적인 인재

육성 사회공헌사업이다.

월성본부 직원들이 일일교사가 되어 생활에 꼭 필요한 소리재생기술인 스피커의 원리와 발달과정 및 무선통신기술인 블루투스 관련 공학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선이 없이 무선으로 연결되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직접 조립해 휴대폰으로 연결해 음악도 들어보는 등 흥미로운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의 참여와 호응을 높였다.

김한성 본부장은 "지역의 재능 있는 학생들이 주주 원자력 산업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과학인재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한수원, 체코 신규원전 계약체결 위해 '박차'

체코 신규원전 협상단 한국 내방  
22일까지 울산 새울원전 등 방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체코 신규원전건설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체코 신규원전 협상단'이 11일 한국을 방문했다.

발주사의 모회사인 체코전력공사의 토마스 플레스카츠(Tomas Pleskac) 신사업 본부장 및 페트르 자보드스키(Petr Zavadsky) 발주사(EDU II) 사장을 포함한 60여명으로 구성된 협상단은 오는 22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경주 한수원 본사와 울산 새울원전, 창원 두산에너지빌리티 공장 등 현장실사를 하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코 현지에서 이어 국내에서 진행되는 이번 협상은 체코 신규원전 사업 발주사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으며 한수원은 발주사에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산업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계약 협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지난 7월 17일 체코 신규원

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래 최종 계약체결을 위해 발주사와의 협상에 총력을 다해오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분야별(기술, 사업관리, 핵연료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대응 TF를 구성해 지금까지 체코 현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다.

토마스 플레스카츠 본부장은 "이번 방향을 통해 지난 7월부터 논의한 분야별 실무협상과 현장실사를 병행해 계약협상 과정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페트르 자보드스키 사장은 "두코바니5·6호기 신규 원전사업 계약 협상은 내년 3월 최종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주호 사장은 "한수원과 발주사가 성공적인 체코 신규원전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호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내년 3월 최종 계약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뜻을 전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맞은 경주

##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 어린이보호구역 내

#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휴일·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도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 ‘밤에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달성’ 만든다

#### 세천교 야간경관 개선사업 완료 LED미디어바로 다채로운 빛 연출

달성군은 ‘달성군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범사업 발굴’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야간경관 명소화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달 세천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지난 7월 지역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야간경관을 개선하고자 지역 내 권역별, 요소별 알기 쉽고 체계적인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군은 수립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군 전역의 야간경관 조명, 설치물 등을 정비하고 달성만의 독창적인 빛을 연출할 방침이다.

지난달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된 첫 사업 ‘달성군 세천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완료됐다. 세천교는 다사읍 세천리와 매곡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조

성돼있고 산책로와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야간 활동이 활발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외 조명 시설이 없어 다소 어둡고 밋밋했던 세천교가 이번 사업을 통해 생동감 넘치고 안전한 곳으로 변모했다.

‘달성 달성’이라는 주제로 세천교에 LED 미디어바 조명을 설치해 다채로운 빛을 연출했으며 설치된 야간조명은 일몰 후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된다. 군은 내년에도 지역 내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이어나갈 것으로 지난 9월 중 유가를 중앙공원(테크노공원로 58)에, 10월 중 가장면 용계리의 용계교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했다.

최재훈 군수는 “야간에 연출되는 아름다운 조명이 주민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하며 향후 지역 내 야간경관 명소를 순차적으로 정비·개선해나가 밤에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달성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종찬 기자jongchan2114@naver.com

# 군위, 대구 군부대 이전 군민 서명 1만명 돌파

#### 추진위원회, 전국전기대회서 축하 퍼포먼스·서명운동 부스 2만명 동의 목표 유치활동 펼쳐

대구 군부대 이전 군위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군위 삼국유사면민운동장에서 열린 군위 삼국유사 전국가축경기대회 행사에서 대구시 군부대 군위군 이전 서명 1만명 돌파를 알리고 동시에 앞으로 2만명 서명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당일에도 대군민 서명 운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대구시 군부대 이전 서명 1만명 돌파 축하 퍼포먼스와 함께 대구시 군부대 군위군 이전의 열망을 담은 쉼터 농독 및 구호제창으로 진행됐으며 행사 내내 서명운동 부스를 운영해 경기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쳤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서명부 운동은 무려 3개월만인 10월 말에 1차 목표였던 1만명 달성에 성공하는 큰 쾌거를 이뤘다.

장병의 위원장은 인구소멸위기지역인 군위군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활성화의 해결책으로 군부대 이전이 최우선을 알리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열망이 가져온 서명부 1만명 돌파에 감사함을 표시했다.

지난 5월 7일 발기인 대회를 가지고 7월 16일 발대식을 가진 추진위원회는



기존 우보면 16개 사회단체 연합을 중심으로 활동해 오던 군부대 이전 유치활동의 한계를 벗어나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군 단위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느낀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단체로 장병의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재 읍·면별 대표위원들과 함께 활발히 대구시 군부대 유치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추진위원회에서는 군민대상으로 군부대·공용화기 훈련장과 관련한 장·단점 안내 및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추진상황, 이전절차 안내, 군민들의 접점 등 군민들과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며 군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공감대 형성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이어나가고 대구시 내 군부

대가 위치한 구·군 추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 및 논의를 통해 성공적인 대구시 군부대 군위군 이전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추진위원회에서는 군위 삼장군 단오축제, 삼국유사청춘대학, 군위군민체육대회 등 군위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군부대 이전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국방부, 대구시 등 관계기관 대상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대구시 군부대 이전 민간위원회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반드시 대구시 군부대 군위 이전을 성공시키겠다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도한 장병의 위원장은 “군민 인구의 약 50%인 1만명 서명

부 작성의 성과는 여기 계신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열망이 가져온 결과라 생각하며 2만명 작성 목표를 꼭 이뤄내겠다”면서 “대구시가 올 연말쯤 이전 후보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으니 군부대 이전이라는 목표의 성공을 위해 군과 협조해 군민을 대표하는 추진위원회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했다.

김진열 군수는 “민간이 주도한 서명운동 1만명 돌파를 축하드리며 추진위원회 회원분들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앞으로도 대구시 군부대 군위군 이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라며 저희도 노력해 반드시 군부대 이전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라고 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 대구보건대학교, 홍콩 우수 안경산업 탐방

#### HKOF 참관... 글로벌 동향 파악

대구보건대학교 Hi-FIVE HIVE센터 안광학사업단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홍콩을 방문해 안경광학과 AI융합안경디자인 전공 학생 14명과 함께 해외 우수사례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신 안경·아이웨어 관련 제품이 한자리에 출품되는 홍콩국제안경전시회 ‘HKOF’ (Hong Kong International Optical Fair)를 참관하고 안경산업 트렌드와 AI융합 기술 관련 경험을 쌓기 위해 마련됐다.

‘HKOF’는 홍콩에서 개최하는 세계 4대 안광학 전시회 중 하나로 11개 국 700여브랜드가 참여해 최신 광학 관련 제품을 선보이는 국제 전시회다.

참가 학생들은 ‘HKOF’를 통해 최신 아이웨어 제품의 디자인과 기술 트렌드를 직접 체험했다. 또한 현지 안경원을 방문해 홍콩 시장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과 매장 운영 방식을 견학하며 글로벌 안경산업의 동향을 파악했다.

이경록(안경광학과 AI융합안경디제

팅 전공1·19)학생은 “세계적인 전시회를 통해 최신 디자인 트렌드와 마케팅 전략을 직접 경험하고 AI 기술이 접목된 디자인 기획과 마케팅 사례들을 보며 우리 전공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솔자로 참여한 황혜경 단장(안경광학과 교수)은 “학생들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직접 체험하고 미래 안경산업에 선도할 전문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행사에 참가해 대학과 산업체,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경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대구 북구와 협력해 안경산업특구에 중사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부 지원사업인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1유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안경광학과는 지난해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안경 디자인과 마케팅을 융합한 ‘AI융합안경디자인’ 교육과정을 국내 최초로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안경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교통공 “수험생 교통편의·안전수송 지원 최선 다하겠다”

#### 2025 수능 대비 특별 수송대책 마련 등교시간대 열차운행 증편 등 계획

대구교통공사는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열차를 증편하고 운행간격을 조정하는 등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해 수험

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능시험 당일 등교시간대(오전 6-8시)에 1·2·3호선별로 각 4회씩 총 12회 열차운행을 증편하고 열차운행간격은 기존 6-9분에서 5-6분으로 조정해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반월당역 등 주요 역사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동 검수원 10명을 배치하고 비상대기 열차 6대를 차량기지에 준비하는 등 비상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시험장 주변 22개 역에는 시험장 안전문 부착과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 시험장 안내 및 이례상황에 대비하고 ‘무

릎담요’를 준비한다.

김기혁 사장은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와 안전수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대구시, 청소년 선도·보호 분위기 제고... 결의대회 개최

#### 유공자 표창·장학금 전달 등 진행

대구시는 2024년 청소년 선도·보호 결의대회를 12일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수능 시험 이후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

회적으로 청소년 선도·보호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청소년 선도·보호에 앞장선 유공자 표창,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 청소년 선도·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의 문제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시는 매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앞장서서 선도·보호활동과 캠페

인 전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청·경찰청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귀용 교육청소년과장은 “수능 시험 이후 들뜬 분위기로 인해 자칫 다른 길로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지지하는 일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예천, 2024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 시작

12개 읍·면 총 6984t 순차 진행  
일품벼·영호진미 2개 품종 해당  
연말에 최종정산금 지급 예정

예천군은 이달 11일부터 웅문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2024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를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올해 매입 목표량은 총 6984t으로 이

는 전년 대비 111% 수준에 해당한다. 매입 품종은 '일품벼'와 '영호진미' 2개 품종이며 총매입량은 5820t의 건조벼(시장격리곡 1489t 포함)와 146t의 가루쌀, 1018t의 산물벼를 포함한다. 향후 '일품벼'는 오는 2025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매입은 예천군 내 37개 수매장에서 진행되며 벼 출하시 군에서 제공한 새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벼의 수

분함량은 13-15%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정선과 품종 혼입을 금지하고 중량 기준을 준수해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매입 시 중간정산금 4만원은 수매 당일 지급되며 최종 가격은 통계청에서 수확기(10-12월) 동안의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산정돼 연말에 최종정산금이 지급된다. 또한 건조벼를 매입할 때 품종 검정 제도에 따라 매입 농가 가운데 5%를

표본으로 선정, 시료를 채취해 검정한다. 검정결과 매입 대상 외 품종이 20% 이상 혼입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학동 군수는 "7월과 9월의 극심한 호우와 폭염 등 어려운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확의 결실을 맺은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영주 임혜숙씨, 6차산업 실현 젊은 감각의 선도 농업인 '주목'

도 농업인대상 '청년농업인' 수상  
지속가능 농업 모델 구축 큰 기여

11일 경북도청 동관관에서 진행된 '2024년 경북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영주시의 임혜숙(39·여)씨가 경북도 농업인대상(청년농업인분야)를 수상했다. 여성 청년농업인 임혜숙씨는 1차 산업인 인삼재배에서부터 가공, 체험관광에 이르기까지 6차산업을 실현한 젊은 감각을 가진 선도 농업인이다. 특히 예비 청년농업인 교육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축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 받았다. 이번 경북도 농업인대상 청년농업인

분야 선정은 그녀의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데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수상한 임혜숙씨는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이다. 이 상은 현장에서 함께 노력해 온 모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여성 청년 농업인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모범이 돼 헌신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 의성군 '성냥공장 투어'로 역사·문화 체험

16·17일 고운마을 캠핑객 대상  
자연 탐방·성냥갑 만들기 등 마련

의성군은 오는 16일과 17일에 의성 고운마을 캠핑객 대상으로 16일 캠핑, 17일 성냥공장 투어 및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의성성냥공장추진단과 고운마을 캠핑장이 주관하며 참가자들에게 △캠핑장에서 의성의 자연을 느끼고 △의성성냥공장에서는 의성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으며 △투어 후에는 직접 성냥갑을 만들어 성냥을 채워갈 수 있는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의성성냥공장은 의성 근대산업을 책

입했던 장소로 지난 2013년에 폐업한 성광성냥공장을 문화재생산업체를 통해 새로운 관광자점 공간으로 만들고 있으며 그 당시 성냥을 제조했던 기계와 근로자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참가 방법은 오는 16일 고운마을 캠핑장 현장에서 신청하거나 의성성냥공장 홈페이지(https://usm195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주수 군수는 "앞으로도 지역민과 관광객들 대상으로 의성성냥공장과 의성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 의성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문경시, 통영 야간경관조명  
선진지 우수시책 벤치마킹  
지역 접목 시책 수집·발굴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7일, 8일 1박 2일 동안 경남도 통영 일대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타 도시 우수시책 사례를 견학하고 문경의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첫날은 통영의 케이볼카 체험 후 특강과 세미나를 실시했고 저녁에는 디피랑을 방문해 야간경관조명의 선진 견학지를 탐방했다. 둘째 날에는 통영 산양스포츠파크와 전통중앙시장 등 우수사례에 대한 비교견학을 통해 문경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수집·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선용 의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발굴한 지역발전 아이디어들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춰 접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 석보면 새마을회, 사랑의 김장 담그기... 지역사회 온기 전해



영양군 석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8일 석보면 화매권역센터에서 '2024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앞두고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지역의 취약 계층에 온정을 전하기 위한 봉사활동으로 새마을 가족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준비됐다. 행사에는 새마을지도자 회원 약 30

명이 참여해 정성껏 200포기의 김치를 담갔으며 완성된 김치는 각 마을의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 등 총 4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구재학 협의회장과 신순봉 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811@naver.com

이원기 면장은 "지속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 주시는 새마을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따뜻한 나눔의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웃음과 온기를 더하는 계기가 됐으며 석보면 주민들은 이번 김장 나누기 행사를 통해 서로의 정을 나누며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다졌다. 김경태 기자tae66811@naver.com

# 안동시, 지속 가능 친환경 농업 육성 '힘써'

유기질비료사업 지원 신청 독려  
내달 10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동시는 농업부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11월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202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혼합유박, 지분 유기질, 유기복합비료)와 부속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일반퇴비)이며 등급에 따라 포대당 1300원에서 1600원이 정액 지원 예정이다. 특히 안동시 지역 내 비료 생산업체를 이용하는 농업인에게는 포대당 최대 300원의 추가 지원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안동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비료 구입 비용을 줄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업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안동시는 이미 6221 농가에 183만포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친환경 농자재의 지원을 확대해 토양 환경을 보전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811@naver.com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와 부속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일반퇴비)이며 등급에 따라 포대당 1300원에서 1600원이 정액 지원 예정이다. 특히 안동시 지역 내 비료 생산업체를 이용하는 농업인에게는 포대당 최대 300원의 추가 지원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안동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비료 구입 비용을 줄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업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안동시는 이미 6221 농가에 183만포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친환경 농자재의 지원을 확대해 토양 환경을 보전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811@naver.com



# ‘대가야 왕릉길’ 걸으며 군민 화합·건강 도모

# “아이들의 꿈·잠재력 성장 밑거름”

성주군, 지역아동센터연합 발표회... 아동 작품 전시 ‘눈길’

고령, 지산동고분군 배경으로  
군민·방문객 걷기대회 ‘성황’  
다채로운 즐길 거리에 호응도 ↑



고령군은 지난 9일 오전 9시 대가야 문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12회 대가야 왕릉길 걷기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가야의 찬란한 역사이자 세계유산에 빛나는 고령 지산동고분군을 배경으로 군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특별한 시간이 됐다.

참가자들은 대가야문화누리 야외공연장을 출발해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지산동고분군을 따라 주산으로 내려오는 약 6km의 코스를 완주했다. 걷는 내내 참가자들은 대가야의 유구한 역사를 몸소 느끼며 고령의 자연이 선사하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걷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체험부스와 공연으로 더

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고령군 여성단체협의회와 새살림봉사회가 운영한 먹거리 부스, 고령소방서의 안전체험부스, 고령군보건소의 건강UP 체험부스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내일은 미스트롯2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 강혜연과 지

역가수 최비송의 축하공연은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경품추첨 이벤트로 참가자들에게 설렘과 즐거움을 더했다.

이남철 군수는 “대가야왕릉길 걷기 대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고령군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알리고 군민들

이 함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문화·체육 행사를 통해 고령군이 더욱 사랑받는 고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일호기자hoyaf1515@daum.net

성주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는 지난 8일 성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성주군 지역아동센터연합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성악가의 축하공연과 함께 4개소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바이올린 및 오카리나·우쿨렐레·피아노 연주, 합창 및 태권도, 난타와 댄스공연 등 다양한 장르로 진행됐으며 아동들이 손수 만든 작품들도 함께 전시해 아동들이 주제가 된 행사로 눈길을 끌

었다. 이와 함께 종사자를 위한 표창을 통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후원금 전달도 이어졌다.

김미란 연합회장은 “한 해 동안 아동들이 준비한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 아이들 스스로의 꿈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성장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일호기자hoyaf1515@daum.net

## 국립칠곡숲체원, 어르신 치매예방에 ‘힘써’

숲속 향기치유 프로그램 마무리  
후각훈련 통해 사고능력 향상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칠곡숲체원은 11일 노인 단체를 대상으로 치매예방과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숲속 향기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향기치유 프로그램은 후각훈련을 통해 대상자의 전반적인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대구한의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됐다.

이에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대구시 치매노인지원시설 기억학교협회와 연계해 총 313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

행했다. 참가자들은 숲 향기 시향을 통해 현재 자신의 후각 기능을 점검하고 숲 향기를 활용한 향수로 일상 속 후각능력 회복훈련 방법을 배웠다.

국립칠곡숲체원은 앞으로도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숲 향기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향기 숲길 조성 등 향기 관련 사업을 특화할 예정이다.

이우진 원장은 “치매인구 100만명 시대에 접어들어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면서 “국립칠곡숲체원은 향기치유 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치매예방과 건강향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 김천시, 노촌 이약동 선생의 ‘청백리 정신’ 널리 알린다

하로서원서 청백리상 시상식  
임영호·하태훈·이순임 선정



김천시는 조선 전기 김천 출신으로 청렴한 관직생활로 청백리에 오른 노촌 이약동 선생을 기리기 위해 ‘노촌 이약동 청백리상’ 시상식을 지난 4일 양천동 하로서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김천문화원(원장 이기양)이 주관하고 김천시와 노촌기념사업회가 후원했으며 이호중 벽진이씨평정공파 회장을 비롯한 선생의 후손들과 수상자 가족, 동료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는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임영호,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하태훈,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이순임으로 지난 4일 김천문화원에서 공고를 통

해 기관의 공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평정공 노촌 이약동 선생은 제주 목

사 전라도 관찰사, 이조참판 등을 지내면서 청렴하게 관직을 수행했으며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수록된 유명한 일화로 제주 목사를 마치고 떠날 때 말채찍마저도 관물이라 해두고 왔다는 괘편암(掛鞭岩) 일화가 남아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말채찍과 이약동이 제주목사 재임시 청백리 정신이 남긴 제주도 유적지 답사를 제공한다. ‘노촌 이약동 청백리상’은 해마다 청백리 노촌 이약동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청렴한 자세로 봉사하는 공직자를 발굴해 공직사회에 청백리 정신을 확산하고자 제정됐으며 올해 7회를 맞이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 구미, 여성지도자 리더십 강화 워크숍 개최

구미시가 ‘여성지도자 리더십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8일 부산시 일원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개 단체를 이끄는 여성 지도자들이 모여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스트레스 자기관리’를 주제로 한 교육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강화하고 지역 탐방 시간을 통해 이들이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구미시는 여성의 성장과 민관 협력

을 강화기 위해 해마다 여성지도자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여성단체협의회를 대상으로 개인적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발전에 기여할 여성 리더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민영미 시 가족정책과장은 “현대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역량 있는 여성 리더가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이분 기자ub0104@hanmail.net

##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최선’

민관 협력 사례관리 워크숍 실시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7일 사례관리팀과 이웃사촌복지센터 공동 주관으로 민관 종사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하반기 민관 협력 사례관리 워크숍’을 실시했다.

1부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오세용 팀장을 초빙해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방안 및 부산 진구 우수 사례 공유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 후에는 민관 사례관리 실무자들이 업무 관련 궁금한 점이나 슈퍼비전 받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져 업무 역량

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부는 이웃사촌복지센터의 연계협력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민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웃사촌복지센터의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고 실무자들의 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웬스톤방향제 만들기)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민관 사례관리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광호 관장은 “상반기에 이어 민관 협력 사례관리 워크숍이 시행됨에 따라 사례관리자들간의 교류 역시 활성화되고 있다. 다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사회복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민관 사례관리 협력 및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아리따움 경주점**  
대표 박 선 이

경주시 계림로 102  
☎ 054-749-7979

**아시아나스포츠**  
대표 최 병 진

경주시 화랑로 47  
☎ 010-5588-9999

**스멜스라이크브레드**  
대표 황 숙 향

경주시 광종길 24 127호  
☎ 054-3523-1308



# 포항시 “전 세계 유일의 스마트시티 만든다”

### 스페인서 열린 ‘SCEWC’ 참가 통합한국관 내에 포항관 운영 사업 현황·성과 등 널리 알리

포항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4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콘그레스(SCEWC)’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 박람회로 전 세계 국가, 도시, 연구기관, 대기업 등이

참가해 각자의 기술과 스마트시티 관련 비전을 공유한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 대비 약 1.6배 확대된 전시 규모로 130여개국에 1100개 이상의 기업과 도시가 참여했으며 포항시는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과 함께 2년 연속 참가했다. ‘Live Better’,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시’라는 주제로 △실용 기술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협치(거버넌스)·경제 △생활·포용성 △공공기반 시설·건축 △해양 경제 등 7개의 세부 주제별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시는 스마트시티 우수 지자체로 선

발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통합한국관’ 내에 ‘스마트시티 포항관’을 운영해 포항의 스마트시티 사업 현황과 성과를 글로벌 무대에서 널리 알렸다. 또한 ‘벤처혁신 스마트시티’라는 목표를 ‘지역상생 스마트시티’라는 전략을 기반으로 포항만이 달성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함으로써 참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전국 최초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센터를 운영하는 지역 대기업과 포항 스마트시티 서비스 타라보스 △수익공유 택시지붕광고 △ALL IoT TAXI를 운

영하는 창업기업 3사는 포항을 기반으로 실행하고 있는 혁신 서비스를 유럽 주요 국가 및 일본, 사우디 아랍코 등 글로벌 기업에 소개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엑스포 참가로 포항이 다 글로벌 스마트시티와 차별화된 모델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스마트시티 분야 창업생태계를 확대하는 물론 더 큰 비전과 넓은 포용력으로 도시구성원 모두가 공동 성장하는 전 세계 유일의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ngh0311@naver.com



## 경산신협 “울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 어려운 가정에 이불 20채 기탁

경산신협은 11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가정에 전달할 겨울이불 20채를 기탁했다. ‘온(溫)세상 나눔 캠페인’은 지난 2014년 전국 신협과 임직원이 주축이 돼 설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기부 협동조합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에너지 빈

곤층에 난방용품을 전달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연말 나눔 캠페인이다. 이광식 경산신협 이사장은 “쌀쌀해진 요즘 날씨에 지역 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영천, 국무총리기 시·도대항검도대회 ‘성료’... 600명 경쟁

###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실력 겨뤘 인천시 ‘종합우승’ 대회 마무리

제11회 국무총리기 생활체육 전국시·도대항검도대회가 지난 9일, 10일 이틀간 영천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항검도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검도회와 영천시검도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초등부부터 청장년층 동호인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600여명의 검도인들이 모여 뜨거운 경쟁과 화합의 장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인들의 검도 실력 향상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각 시도에서 온 선수들이 개인전과 단체전에 걸쳐 실력을 겨뤘다. 다양한 연령과 실력층을 아우르는 대회답게,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각 부문별 경기가 치러졌으며, 검도의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열정 넘치는 경기가 이어졌다. 지난 10일에 열린 개회식에는 최기문 영천시장, 이만희 국회의원, 김선태 시의장, 박봉규 시체육회장, 백낙주 경북검도회장, 최진순 영천검도회장 등 내빈과 선수단이 함께 참석해 대

회 개최를 축하하고, 선수들에게 응원 의 메시지를 전했다. 시군구 대항 단체전 결과 개인전은 △초등 저학년부 임정우(경남) △초등 고학년부 김민승(경남) △중등부 전주오(강원) △고등부 홍준서(경남) △여자부 장지은(울산) △대학동아리부 김성연(인천) △남자 청년부 최진수(광주) △장년부 박진환(경기도) △중년부 남기원(경남) 선수가 우승했으며 단체전에서는 △초등부 광주시 △정소년부 경남도 △여자부 인천시 △대학동아리부 인천시 △남자 청년부 서울특별시 △장년부 서울특별시 △중년부

경남도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종합 순위에서는 인천시가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검도인들에게 선의의 경쟁과 함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이색적인 관광지가 많은 영천을 자주 찾아 달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영천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국 대회를 유치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검도를 포함한 생활 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식열 기자jisy92920@hanmail.net

## 울진군, 밀원수 식재로 양봉농가에 힘 실어

### 꿀벌의 건강한 서식지 조성 최선

울진군은 지난 7일 꿀벌의 건강한 서식지 조성을 위해 산불피해지인 북면 나곡리에서 밀원수 식재 및 양봉농가 밀원수 나눔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행사 추진은 2022년도 울진산불로 꿀벌 먹이를 제공하는 밀원이 사라졌고 지구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양봉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   
올해 두 번째로 추진하는 밀원수식

재 행사에는 ㈜트리플레넷(대표 김형수) 사회책임기업과 울진군양봉작목회(회장정만교), 한국농어촌공사영덕읍진지사, KT&G, 산림조합중앙회동부목재사업소 등 기관·단체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밀원수 200주를 식재했으며 아울러 양봉농가에 헛개나무묘목 2000주를 배부했다. 손병복 군수는 “울진군과 여러 기관이 협업을 밀원수 식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양봉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 영덕,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이룰 것 생활인구 확대 이바지 ‘기대감’

영덕군은 지난 9월 26일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포함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적극 발굴해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에 비교적 단기로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인구감소 지역에 맞는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 관광단지

규모였던 50만㎡ 이상에서 5만㎡~30만㎡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고 관광단지에 도입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역시 3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업, 운동·오락·휴양·문화시설)에서 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업)으로 줄어들었으며 시·도지사만 가지고 있던 관광단지 지정 권한 또한 지자체장으로 이양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관광단지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면적 기준과 시설기준이 완화돼 단기간에

조성이 가능하며, 이러한 규모적 유연성으로 기존 시설과도 기능적 보완이 가능해졌다. 김광열 군수는 “소규모 관광단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민간자본 투자로 관광거점을 조성할 수 있어 인구감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덕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다양하고 입체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 청정 청도 농·특산물, 안전성·우수성 홍보

### 친환경농업체험마을 행사 열어

청도군은 지난 8일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및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운문면 오진리 일원에서 ‘친환경농업체험마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 경산 등에서 참가한 도시소비자와 마을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친환경농업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친환경농업체험마을 행사는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하고 특색있는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지역 친환경농업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행사이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지난 2021년부터 오진리 마을은 친환경농업체험마을로 선정되어 3년 동안 체험마을을 조성 위한 행사를 추진했고, 올해부터는 조성된 체험마을에 농산물 체험 중심의 친환경농업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표고버섯 따기, 무 뽑기 등 특색있는 체험활동을 진행함은 물론 지역의 우수한 친환경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손형미 친환경농업과장은 “청정 청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더욱 알찬 친환경농업마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금장대(중식당)**  
대표 이재희

경북 경주시 현곡면 동대로 224  
☎ 054-771-9900

**대구경북교육신문**  
대표 백재욱

경주시 초당길 5번길 3 (동천동, 2층)  
☎ 010-7755-2933

**(주)세영클린텍**  
대표 양창권

경주시 천북면 천강로 90  
☎ 010-3539-9395

# 예천군, 14년 연속 '경북 최고 농정시책' 입증

### 도 농정평가 '우수상' 수상 쾌거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등 '호평' 첨단 농업 환경 선제적 대처 '힘'

예천군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차별화된 농업 시책 추진을 인정받아 '2024년 경북도 시·군 농정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도 농정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대전환, 농식품유통, 스마트농업, 축산정책, 동물방역, 특수시책 등 농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예천군은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과 유통 활성화 지원, 직거래 활성화,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농정업무 활성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14년 연속 경북도 농정평가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웠으며 이를 통해 예천군이 명실상부한 경북 최고의 농업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게 됐다.

또한 황영숙 농부청과 대표도 지난 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강한 소상공인 2024 넥스트 라이콘 통합대상' 수상에 이어 이날 농산물 가공유통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북 농업인 대상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학동 군수는 "14년 연속 경북도 농정평가에서 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 행정을 신뢰하고 적극 협조해주신 군민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농정시책으로 첨

단 농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영균 ㈜한국에코팜 대표는 서울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대강당에서 농업인의 날 기념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 자긍심 심는다

### 경주교육청, 초·중·고교생 대상 문화재 학예연구사와의 만남 운영 역사·문화 이해, 진로상담까지

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23명을 대상으로 '2024 화랑! 꿈 찾Go 미래 Job 고 문화재 학예연구사와의 만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화랑! 우리가 다가올 미래의 주인공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김경열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학예연구사는 사학과 졸업 후 여러 발굴조사에 참여하며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기까지의 과정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줬다. 강의 후 질의응답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인 진로 상담을 받기도 했다.

권대훈 교육장은 "문화재 학예연구사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해보고 특히 우리 학생들이 살고 있는 경주, 천년고도 신라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단계 높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경열 학예연구사는 "문화재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며 "학생들이 이번 만남을 통해 문화재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래 직업으로서 블루오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경주에 살면서 매일 마주치는 유적지나 유적들을 대수롭지 않게 바라봤는데 강의를 통해 경주에 살고 있음에 자긍심을 가지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대훈 교육장은 "문화재 학예연구사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해보고 특히 우리 학생들이 살고 있는 경주, 천년고도 신라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단계 높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심진 기자wba112@daum.net

# 안동, 맑은물 상생수 시설 공사 '착착'... 시민 물 복지 강화

### 용상2정수장 내 내년 2월 완공 병입수 생산실·컴프레서실 등

안동시가 추진하는 시민들의 물 복지를 향상시키고 친환경 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맑은물 상생수(병입수) 생산시설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생산시설은 안동시 용상동 430번지에 위치한 용상2정수장 내에 건설되며 사업비(건축 토목 기계설비) 8억 8400만원이 투입, 지상 1층 연면적 492.94㎡ 규모(1개동)의 일반철골구조이며 병입수 생산실을 포함해 전처리실, 컴프레서실, 공병보관실과 부대복리시설로 돼 있다.

현재 맑은물 상생수 시설의 공정률



은 약 52%로 공사는 지난 8월 착공해 오는 2025년 2월경 완공예정이다.

이번 맑은물 상생수(병입수) 생산시설 조성사업은 기후변화와 수질 관리

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병입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설이 완공되면 시민들에게 품질

높은 병입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고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

임정훈 맑은물관리 과장은 "준공이 내년 2월인데 협력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오는 12월 말경 준공, 공사기간 단축으로 협력업체들이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설계에서도 상생수 생산시설에 꼭 필요한 부분을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할 것이다. 적합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배제해 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시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품질 높은 물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 (주)금복주, 청송 학생들 위한 '통 큰 기부' 군 인재육성장학회에 1000만원...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청송군은 (주)금복주가 지난 7일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참소주'로 대중에게 익숙한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주류기업인 (주)금복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를 이어가고 있다.

김일환 대표는 "청송의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며 앞으로

도 지역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경희 이사장은 "올해도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금복문화재단의 지역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금은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 봉화,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안전한 교통문화'

### 사고예방 등 유용한 정보 강연

봉화군은 지난 8일 봉화군청소년센터 공인장에서 한문철 변호사를 초청해 '교통사고 안 내고 안 당하기'라는 주제로 2024년 제3회 봉화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현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대표로 SBS '맨 인 블랙박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대처법, 교통사고 처리 절차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알렸다.

특히 도로 위 농기계 교통사고와 동

물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 사항도 함께 다뤘다.

또한 이날 한문철 변호사는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에 교통사고 예방물품인 반광망도와 반광모자 각 100개씩 기증해 더욱 뜻있는 자리가 됐다.

안철환 군지회장은 "교통약자인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기증해 준 소중한

물품을 잘 사용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배진태 부군수는 "이번 '교통사고 안 내고 안 당하기' 강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봉화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수준 높은 강연을 제공하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 영덕교육청, 소프트웨어 개발반 수료식

영덕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2024학년 도 영덕발명교육센터 소프트웨어 개발반 수료식을 개최했다. 소프트웨어 개발반은 지역 내 초 5학년-중 2학년까지 신청을 받아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5주간 매주 토요일에 운영됐다.

소프트웨어 개발반 학생들은 5개 프로그램(생성형 AI, Scroobly, 라인코딩, FACEJOY App, 마이크로비

트)을 배우고 배운 프로그램을 이용해 캐릭터 디자인, 인공지능으로 음악 만들기,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한 게임 제작 등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키웠다.

남정일 센터장은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발명역량 고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 더블에이치플랜

### 종합이벤트 기획·연출·진행

대표 현 병 희

경북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7층 더블에이치플랜

Mobile : 010-3517-1105



# 구미 고아제2농공단지 '100% 분양 목표' 매진

### 분양 수요 맞춤형 업종 재배치 긍정적 영향, 분양률 상승 기대 한시적 분양가 인하 기업 유치

구미시가 고아제2농공단지 업종 재배치로 분양가 상승률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한다.

고아읍 오로리 소재 고아제2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새로운 업종 배치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입주 기업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시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양률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아제2농공단지는 개발계획에 따른 기존 업종배치에 따라 분양이 진행돼 왔으나 특정 위치에만 한정된 업종



제한으로 인해 수요가 높은 업종의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구미시는 관리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을 비롯해 관계 기관과

필지에 이어 예비 분양 5필지가 추가돼 총 11필지가 분양된다.

이에 따라 분양률은 현재 12.8%에서 23.4%로 향상될 전망이다.

최근 경기 불황 속에서도 고아제2농공단지는 한시적 특별 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평당 93만7950원에서 78만3620원으로 인하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분양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구미시는 이번 업종배치 변경이 분양률 상승에 더욱 탄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장호 시장은 "이번 업종배치계획 변경으로 고아제2농공단지가 인근 산업단지 대비 더욱 경쟁력 있는 분양 조건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분양률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익분 기자ub0104@hanmail.net

# 대구, 대구 금호강 1급수 만들기 발판 마련 달서천 5구역 민자사업 에타면제 선정... 국비 808억원 확보

하수로 인한 침수, 악취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공공수역의 안정적인 수질보전을 위해 추진 중인 달서천 5구역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지난달 31일 김운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됐다.

대구시는 달서천 5구역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총사업비 2894억원 중 국비 808억원을 확보하게 됐고 민선8기 공공사업인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에 발판을 마련했다.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BTL)'은 사업시행자(SPC)가 사업비를 선투자해 사업을 추진·완료되면 하수관로 등 시설물은 대구시로 귀속되고 20년간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달서천 5구역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지난 7월

민간 제안사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돼 내부 검토 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 민자 적격성 조사 검토를 의뢰했으며 민자 적격성조사를 적기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이 시급한 과제였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 검토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민자 적격성조사 검토가 마무리되면 국회 한도액 승인 후 민간투자사업 심의 및 제3차 제안공고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하반기에 착공해 2032년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우·오수 분류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침체돼 있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가스공, 동반성장 정책으로 중소기업 성장지원 '박차'

### 2024 KOGAS 동반성장 포럼 열어 중소기술마켓 제도 정보 등 공유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5일 인터볼고 대구 호텔에서 중소기업 임직원들과 함께 "2024 KOGAS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가스공사와 화성밸브㈜ 등 29개 중소기업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가스공사는 정부가 집중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기술마켓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기업기술마켓 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우수기술과 제품을 직접 검증하고 지원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하며 현재 109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설명회에서 가스공사는 △중소기업



기술마켓 기술·제품 등록제도의 목적과 역할 △등록기업의 혜택 △마켓 활성화 위한 추진방향 등을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기술마켓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국산화 기술개발 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에 대

해 소개했으며 공사가 시행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주요성과도 공유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기술마켓에 적극 참여해 매출 증가 등 실질적인 경영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다양한 동반성

장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중소기업의 경영역량을 제고하고 원활한 소통과 정보교류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동반성장 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포항시, 제7회 포항 60+ 취업 한마당 '성료'

### 20업체·600명 구직자 참여 활기

포항시는 지난 8일 포항체육관에서 포항일자리창출시니어클럽(관장 이화천) 주관으로 '제7회 포항 60+ 취업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제2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기 위해 진행됐으며 20개의 업체와 6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활기를 더했다.

행사에서는 현장 면접과 채용 정보 제공,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사업 안내를 위한 20개의 기업 부스 가 운영됐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일자리 사업과 홍보를 위한 부스 및 이벤트 부스가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포항일자리창출시니어클럽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노인 인력풀(POOL)을 구성하고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재원 포항시 정무부서는 "고령자 고용 증가가 노년층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

# 김천시,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지원사업 추진

### 내달 10일까지 조기모집 진행

김천시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원인물질 감축대책의 일환으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1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한 달간 조기모집한다.

시는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중소기업기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에 대해 선착순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할 계획이며 이 사업에 노후 방지 시설 교체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1개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지원이 원칙이며 미지원되는 나머지 미부착 배출구에도 반드시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또한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

기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 시청 환경위생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임 환경위생과장은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 경북도-상주시, 투자펀드 간담회 개최

경북도와 상주시는 지난 8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주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전문가의 초경 연과 더불어 공공-민간 협력의 대규모 사업 진행 방안 등에 대한 시행 전략이 강구됐으며 특히 상주 지역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조성에 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홍인기 도 민자활성화과장은 "경북

도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정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며 "민간의 사업성이 부족하고 재정 지원이 미흡해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한 시·군 숙원 사업들을 이제는 투자펀드를 통해 실현해 나가겠다. 도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강영석 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주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영덕군**  
Yeongdeok-Gun

환상의바닷길, 바다와하늘이 함께 걷는 길  
함께 걸어요, 블루시티 영덕

김천농산물가공연합회, 수익 기부



지난 7일 김천시농산물가공연합회 맛피아(Flavor Utopia) 회원 7명은 김지남달 김천 김밥축제에서 지역 농산물로 만든 532김천밀떡주, 호두막걸리 정담두부, 호두떡빵(김밥떡), 자두떡, 단비샌드, 호두찰떡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일부(100만원)를 김천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이날 회원들은 “지난 김천 김밥축제 때 전대미문의 방문객들로 ‘김천, 팔(八)맛대장경’을 포함한 우수 농식품도 기록적인 판매 성과를 올렸다”며 “김천시에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천시농산물가공연합회는 김천시 농식품유통과에서 지역대표 특화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 시작된 단계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과 지원을 받은 사업장 중에서 ‘김천, 팔(八)맛대장경’ 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업체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봉양면 지보협, 사랑의 반찬 지원



의성군 봉양면은 지난 7일 봉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 ‘영양등뿔 반찬지원사업’이 1년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거나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인 취약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총 8회에 걸쳐 각 가구에 국과 밀반찬을 포함한 식사세트를 전달했으며 지보협 위원들은 1년 동안 매 회차마다 정성껏 준비한 식사세트를 직접 전달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 문제해결력 ‘전국 1등’

마이스터고 제전서 대상 영예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는 지난 6일,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된 제15회 전국 마이스터고등학교 제전(학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마이스터고등학교 제전은 전국 54개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문화적 감성과 예술적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창의성·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한다.

또한 학술제와 예술제로 나뉘며 학술제는 수업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결과물을 전시한다. 이를 통해 전국에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학생끼리 교류하며



연대 의식을 느끼고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는 농수산·수산·해양·바이오 분야에 ‘열대과일 껍질 속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을 주

제로 작품을 출품했다. 열대과일인 람부탄, 망고스틴, 패션후르츠의 껍질에서 갈산, 크산톤, 폴리페놀 추출 후 혼합하고 향산화 반응 실험을 통해 향산화 능력을 확인했다.

정미경 교장은 “앞으로도 학생들

이 바이오 분야의 다양한 기술을 배워 우리 삶 속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프로젝트 수업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정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 문경-영남사이버대, 관학 협력 업무협약 ‘힘’

문경시는 지난 8일 영남사이버대학교와 관학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문경시민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영남사이버대학교의 홍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경시민은 영남사이버대학교 입학시 수업료의 50%를 지원받는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남사이버대는 지난 2000년도에 설립

된 현재 사회복지학과, 평생교육학과 등 8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임승환 총장의 선임 이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에 힘을 쏟고 있다.

신현국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민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 성주두레봉사단, 주거개선 봉사 ‘구슬땀’



성주두레봉사단은 지난 10일 월항면 지역 내 저소득 취약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두레봉사단 회원 20여명은 집안 곳곳에 쌓인 쓰레기를 정리하고 목은 때를 닦아내는 등 쾌적한 환경을 위해 힘을 모았다.

성주두레봉사단은 40여명의 회원들

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로 주거개선사업, 물품후원, 무료급식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병환 군수는 “앞으로도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성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l515@daum.net

## 봉화새마을회, 깨끗한 환경 만들기 ‘앞장’



봉화군새마을회는 지난 7일 ‘2024년 새마을 환경 살리기 행사’와 ‘숨은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읍·면별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 사진을 행사장에 전시해 새마을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폐자원 재활용을 통해 만든 친환경 세제 및 비누, 텀블러 등을 군민들에게

배부하며 환경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날 대회는 각 읍·면별로 평소 수집해 모아둔 고철, 폐지, 헌옷 등 폐자원을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지역 자원재활용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동 정

유성여고 수능 시험장 현장 방문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12일 오후 3시 포항시에 있는 수능 시험장 학교인 유성여자고등학교를 현장 방문해 수험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읍·면·동장회의 주제 지역현안 논의



주낙영 경주시장은 12일 오전 8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읍·면·동장회의를 주재해 각종 지역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비축미곡·시장격리곡 수매



박남서 영주시장은 12일 오전 9시 안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개최되는 2024년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수매에 참석할 예정이다.

기로연 참석·관계자 노고 격려



박현국 봉화군수는 12일 오전 11시 군민회관에서 개최되는 2024년 기로연에 참석,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

제18회 장애인 한마음축제 참석



최재훈 달성군수는 12일 오전 11시 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8회 장애인 한마음 축제에 참석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진다.

상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상주시는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8일 시, 경찰서,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석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시민을 대상으로 감정카드를 통한 감정표현놀이, OX퀴즈, 걱정인형만들기 등 체험활동과 긍정양육 홍보지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품 배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을 진행했다.

안윤정 아이여성행복과장은 “시민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 구름계곡 물따라 바람따라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향교·서원 문화유산과 배향 인물이 품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해 향교·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연점유?**  
인동 권씨 문중에서 조상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정자로 계곡위의 봉주대에 자리해 목포의 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자 앞에는 약300년 된 은행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어 가을이 되면 화려한 단풍으로 인해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명소가 됩니다.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움 모습을 선보이는 아름다운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분	프로그램	내용	시간
01 구름을 걷는 선비	구름 속으로	서원 및 배향인물에 대한 설명	20분
	구름을 그리는 선비	선비의 다도·서예체험	30분
	백성과 자연을 사랑한 선비	자연과 어우러지는 전통국악공연	30분
	*상기 일정은 참가단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02 구름속의 선비 (기후변화대응프로그램)	구름 속으로	문화유산의 불과 관련된 설명과 지리를 통해 물의 소중함을 설명	20분
	구름을 그리는 선비	선비복 체험	30분
	구름 물로깅	폐연수막 주머니를 이용한 물로깅 활동	30분
	유연점유	자연의 소리와 함께 다도영상	30분
*상기 일정은 참가단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03 기미를 알고 권도를 행하는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	내용	시간
	인문학 강의	서원의 기능과 배향인물을 통해 그 시대상을 배우고 유적자들의 사상과 삶에 대한 강의	10:00 12:00
*상기 일정은 참가단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간 2024년 3월~11월 신청 054-777-1950 www.silla.or.kr

주최 김천문화재단 후원 국가유산청 경북도 경주시



적십자봉사회 구미시지구협의회가 11일 구미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독거 어르신, 조손가족 등 지역 내 취약계층 20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탁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찾아가는 세탁 봉사는 평상시 이불과 담요 등 세탁이 어려워 취약한 위생환경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이웃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봉사원들은 방문 수거한 침구류 20여채를 이동식세탁차량을 이용해 세탁 및 건조 후 직접 해당 가정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정서적 지원도 함께 실시했다.

김기철 회장은 "몸이 불편해 이불 빨래가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라며 "깔끔하게 빨래 된 이불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외경기자p04140@naver.com

영덕, 어린이 눈높이 요리교실



영덕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8개소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글로컬푸드 어린이 요리교실 '떠나자, 이탈리아' 편을 운영했다.

이번 어린이 요리교실은 △식품군별 영양소 및 식품종류 알아보기(어린이 영양교육 반복학습) △이탈리아의 대표요리 떠먹는 피자 만들기(요리활동) △이탈리아의 국기 만들기(미술활동)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떠먹는 피자 맛보기(가정연계) 등 어린이들이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을 알고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행됐다.

센터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식품군의 영양소와 역할을 알고 골고루 먹기 실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노환기자shghks70@naver.com

영주, 경북도 시군 농정평가 '최우수' 쾌거

부자농촌 건설 농정사업 '호평' 농특산물대축제 신설 등 '주목'

영주시가 11일 경북도청 동관관에서 진행된 '2024년 경북도 시·군 농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농정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의 농업정책, 농식품유통, 친환경농업, 축산정책, 농촌활력, 특수시책 등 다양한 농업 분야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 실시됐다.

영주시는 미래지향적인 부자농촌 건설을 목표로 농정사업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농정사업과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농특산물대축제' 신설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도 주목받았다.

박남서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지향 부자농촌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한단계 더 도약하는 영주농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풍각식자재마트 대표, 고향 청도 발전 '앞장'

청도군 풍각면에 고향발전을 응원하는 기부자들의 고향 사랑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장진수 풍각식자재마트 대표는 지난해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 기탁에 이어 지난 8일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장진수 대표는 매전면 구촌리 출생으로 풍각식자재마트와 밀양시에서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 대표는 "고향 청도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재희 면장은 "고향 청도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장진수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탁해주시신 성금은 청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한노총 문경협, 노사정 한마음 대회 '성료'



한국노총 문경시협의회가 주관한 제 10회 노사정 한마음 대회가 지난 9일 신현국 시장, 이정걸 시의회 의장, 권오택 한국노총 경북본부 의장 등 노사정 대표자와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노사 화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17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노래자랑과 재재 등반대회를 통해 기업 임직원들과 근로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최석진 의장은 "노사정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원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현안 해결과 노사정의 소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신현국 시장은 "오늘의 행사가 그간의 수고를 내려놓고 평소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노사 간의 화합과 우정을 다져 지역사회를 더 아름답게 발전시킬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 기대한다"고 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성주읍, 산불 없는 우리 고장 만들기 '최선'



성주읍은 2024년 가을철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의 적극적인 운영의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11일 성주읍행정복지센터에서 산불감시원,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산불감시원들은 '발두령 태우기 및 각종 쓰레기 소각 정을 다져 지역사회를 더 아름답게 발전시킬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 기대한다'고 했다.

성주읍은 2024년 가을철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의 적극적인 운영의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11일 성주읍행정복지센터에서 산불감시원,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배해석 읍장은 산불의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고장의 산림을 지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소임을 다해 산불 없는 안전한 성주읍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일호 기자hoyai1515@daum.net

청송, 가을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청송군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가을철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고령자, 부녀자단독농가, 장기입원환자 등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실·과·원·소 및 읍·면 공무원 등 160여명이 투입됐다. 또한 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기관과 자생단체의 참여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윤경희 군수는 "청송의 중심은 농민이며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하나가 돼 가을 수확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해병전우회 함창·이안분회 창단식



상주시 해병전우회 함창·이안분회는 지난 8일 창단식을 개최했다.

함창·이안 지역 해병대 출신 전우들이 모여 만든 해병전우회는 해병대의 명예와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사회적 기여를 목표로 조직했다.

강대용 초대 회장은 "해병대 출신들은 모두 강한 책임감과 동료애를 가지고 있다"며 "전우회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준하 읍장은 "해병전우회 함창·이안분회 창단식을 축하드리며 해병대의 자부심과 끈끈한 동지애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찬완 기자changwan12@naver.com

**고향사랑기부제**

# 영주사랑을 전해주세요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주가 아닌 영주를 응원하는 국민 누구나 (연 500만원 한도 내)
-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 기부시스템(PC/모바일) - 고향사랑 e음 (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 금융기관 대면접수(NH농협은행)
- | 기부혜택 |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세액 공제),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
- | 답례품 | 농·축·임산물 (인삼, 사과, 쌀, 한우), 가공·제조품 (홍삼가공식품, 인견제품, 한과, 와인, 부각, 꿀, 장류, 차류, 유제품), 상품권 (영주사랑상품권)

문의 : 영주시 세무과 054)639-6451~6454

# 바이올린 듀오 '이강원·이은정' 완벽한 선율의 무대로

13일 오후 대구콘서트하우스 지역예명품 연주자 무대 선사  
헨델·장 마리 르클레르 등 협연  
피아노 풍부한 화음 더해 기대



대구콘서트하우스의 '클래식 온(ON)' 시리즈 11월 공연 '바이올리니스트 이강원·이은정 듀오 리사이틀'이 13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린다.

'클래식 온(ON)'은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지역 예술인에게 무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 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매월 개최되는 시리즈 공연이다.

11월 '클래식 온(ON)' 공연은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

니스트 이강원과 이은정의 듀오 리사이틀로 펼쳐진다.

이강원은 13세에 대구음악협회 전국 콩쿠르에서 최연소 대상을 수상하며 음악계의 화제를 모았다. 이후 베

를린 국립음대에서 학사 및 석사과정, 데트몰트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박사)을 최우수 졸업했다.

베를린 국립음대 재학 당시 모차르트 프로젝트와 베토벤 프로젝트에 초청돼 베를린 국립음대 챔버오케스트라와 수차례 협연하며 유럽 현지인들의 주목받았고 유럽 음악계에서 실력을 입증받았다.

현재는 앙상블토니카 음악감독, SCP리더, DCH 비르부오스 챔버 수석으로 활동 중이며 경북대학교, 경북예고에 출강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함께 무대에 오르는 이은정은 한국 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재학 중 한예중 영재 입학)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및 전문사 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미국 인디애나대 석사, 보스턴

대 박사과정을 장학생으로 졸업했고 워싱턴, 뉴욕을 포함한 전미 지역 다양한 무대에서 협연자 및 앙상블 연주자로 활동하며 그녀의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귀국 후에는 다양한 기획 공연과 초청 공연에 연주자로 참여하는 등 활발히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후학 양성에도 특별한 열정을 쏟고 있는 그녀는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경북예고 바이올린 실기 강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형태의 예술교육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이번 공연은 이강원과 이은정이 바이올린 듀오 무대를 통해 강렬하면서도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레퍼토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의 첫 문은 김중현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헨델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들려준

다. 두 대의 바이올린이 주도하는 선율 위에 피아노가 풍부한 화음을 더한다. 이어 장 마리 르클레르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쇼스타코비치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을 연달아 연주하며 서정적 선율에 풍부한 감정을 전달한다.

2부에서는 모슈코프스키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을 연주해 두 연주자의 수준 높고 화려한 기교를 발휘한다. 마지막 무대는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잘 연주되지 않는 프롤로프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디베르티멘토'를 완성도 높은 연주로 선사한다.

공연 티켓은 전석 1만원으로 대구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와 인터파크 티켓 강동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김천시 문예회관 '창작 음악극'  
21일 오후 7시 시립울곡도서관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이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에 시립울곡도서관 울곡홀에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25회 정기연주회 '내 이름은, 텀플'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창작 합창 음악극' 형태의 공연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한 편의 합창 음악극을 통해 아이들 정서 함양 및 교훈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주회 1부는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문어의 꿈', '후라이의 꿈'을 비롯해 '오리날다', '추억'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안무와 함께 선보일 예정이며 전통코믹마임 '마블러스 모션' 팀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소프라노 김은주가 특별출연한다. 2부에서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선보이는 창작 합창 음악극 '내 이름은, 텀플'을 통해 이야기에 춤과 음악을 더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교훈을 담은 메시지와 함께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약 90분간 진행되며 취학아동 이상 관람이 가능하다. 사전예매는 진행하지 않으며 공연 당일 한 시간 전부터(오후 6시 30분-) 시립울곡도서관 울곡홀 2층 매표소에서 선착순으로 지정 좌석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 경주시립합창단, 깊어진 가을의 낭만·서정 노래하다

14일 오후 7시 30분 경주예당 정기연주회  
합창곡·가곡·재즈·클래식 등 풍성한 무대

경주시립합창단이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경주예당의전당 화랑홀에서 제52회 정기연주회 '가을 세레나데'로 가을의 낭만과 서정을 담은 공연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깊이 있는 합창곡들과 특별 객원 연주자들의 협연이 어

우려져 더욱 풍성한 하모니와 다채로운 악기 연주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음악적 경험을 선물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가을의 정취를 담은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구성됐다.

클라리넷 연주자 문진성과 김세영, 플루트 연주자 변예슬, 드럼 연주자

백성민이 협연으로 참여해 각 악기와 합창의 조화로운 선율이 무대를 한층 빛낼 것으로 기대된다.

경쾌한 합창곡부터 부드러운 여성 합창, 서정적인 한국 가곡, 재즈와 클래식이 어우러진 클라리넷 곡, 정야한 플루트 연주까지 감동적인 선율이 가

을의 따뜻함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경주시립합창단 제52회 정기연주회 '가을 세레나데'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며 입장료는 전석 5000원이다. 입장권은 티켓링크(1588-7890, www.ticketlink.co.kr)와 경주예당의전당(www.garts.kr)

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잔여석에 한해 당일 현장예매도 가능하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음악을 주는 감동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h0311@naver.com

## 달성문화재단 '아동극 시리즈 3편' 공짜

달성문화재단은 연말을 맞아 지역 아동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달성 아동극 시리즈' 3편을 연이어 개최한다.

이번 아동극 시리즈는 지역의 공연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화원읍(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국화홀), 다사읍(달성문화센터 백년홀), 유가읍(국립대구과학관 사이언트리홀) 3개소에서 진행된다.

'달성 아동극 시리즈'의 첫 공연은 '겨울 판타지 뮤지컬 호두까기인형'이다. 명작동화 '호두까기인형'을 각색한 공연으로 크리스마스 밤 주인공 클라라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관람객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동심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오는 23일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국화홀에서 두 번 개최되며 오후 2시와 5시에 시작된다.

두 번째 공연은 30일 선보일 '앤서

니브라운 가족뮤지컬 우리가족'이다. 이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책 작가 '앤서니브라운'의 작품 중 가족 시리즈 컬렉션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해 만든 뮤지컬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다. 오는 30일 총 2회 선보이며 오후 2시와 5시에 달성문화센터 백년홀에서 열린다.

마지막으로 다음달 1일 오후 2시와 5시에 '가족뮤지컬 슈퍼 히어로의 똥똥 밥'이 국립대구과학관 사이언트리홀에서 개최된다. 안영은 작가의 동화가 원작이며 이번 공연을 통해 똥똥 밥을 몰라 웃음거리가 된 슈퍼 히어로 쟁쟁맨의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들려줄 예정이며 특히 입체적인 무대전환과 특수효과 등 풍성한 볼거리가 준비됐다.

세 편이 시리즈 모두 전석 무료로 36개월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표는



달성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티켓 오픈은 11일 오전 10시 호두까기인형부터 시작되며 13일까지 공연 순으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53-668-4245) 문의도 가능하다.

장충찬 기자jongchan2114@naver.com

##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대구 상륙

대구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이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과 16일 오후 3시에 대구 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펼쳐진다.

해당 작품은 작곡가 차이콥스키와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가 탄생시킨 3대 발레 명작 중 하나로 지난 1892년 세계 초연 이후 겨울과 연말 시즌을 대표하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189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된 '호두까기인형'은 132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있는 겨울 발레 공연으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대중성 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연말 분위기를 한껏 무르익게 할 신비롭고 환상적인 무대, 원작의 스토리가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연출과 안무, '눈의 왈츠', '보즈 왈츠'의 수준 높은 코르드 발레(군무), 클라라와 호두까기왕자의 그랑 파드

되(2인무), 러시아, 스페인, 아라비아, 중국의 캐릭터 댄스까지 볼거리가 풍성하다.

이번 공연에서는 '강미선·콘스탄틴 노보셀로프'와 '한상아·이교르 콘타레프'가 각각 클라라와 호두까기왕자로 출연하며 유니버설발레단을 대표하는 발레 스타들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다. 김희철 관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 발레단인 유니버설발레단과 함께 '호두까기인형'을 대구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처음으로 올릴 수 있어 영광이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연말 분위기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5세(2019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관람가로 입장료는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H석 2만원이며 예매는 회관 누리집과 전화(053-430-7655, 1544-1555)로 할 수 있다.

강동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구미술관 소장품 구입 공고  
12월 6일까지 범위별 신청 접수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은 '2024년 대구미술관 소장품 구입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2월 6일까지 접수받는다.

올해 수집 범위는 △1950년 이전 대구근대미술 △1980년대 대구현대미술 △한국현대미술사의 주요 작품 △국제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작품 매도신청 자격은 개인(작가, 소장자), 법인(화랑, 법인관련자)로 최대 신청 가능 작품 수는 3점 이내이며 오는 12월 6일 오후 6시까지 등기우편 소인본에 한해 접수한다. 소장품 구입은 1차 작품선정심의위원회, 2차 가격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작품의 최종 구입 여부는 대구미술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기타 상세 내용은 진흥원 및 미술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대구미술관 수집연구팀(053-430-7512, 75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주소지 외의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법인은 기부 불가)

♥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드립니다**  
고향의 마음 담은 답례품(기부액의 30%) 제공

♥ **기부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 **고향사랑 기부 방법**

-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접속
- | 방문 | 농협 대면접수

기부하여 혜택받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내 고향 김천시에 사랑을 기부하세요!**




칼럼

### 정부 역할 '자율과 규제' 이분법으로 안 된다(上)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자율성 확대'다. 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가급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사회적 비판을 핵심 역할로 하는 대학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자율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교육부는 표면적으로는 언제나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대학 재정지원과 평가를 매개로 실제로는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

았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번 윤석열 정부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겉으로 자율... 실제로 재정지원·평가 매개로 자율성 제약

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무전공제(전공자율선택제)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이후 비수도권 지역의 거의 모든 대학이 사활을 걸고 있는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강조하는 무전공제 선발 확대가 필수 조건이라는 점은 대학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글로벌대학30 사업 대상이 아닌 수도권 지역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전체 모집인원의 25% 이상을 무전공 선발로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추가 재정 지원)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무전공제 선발 확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사실 무전공제는 입학할 때 전공을 정하지 않

고 대학에서 충분한 학습과 경험을 해 보고 난 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라는 좋은 취지를 가진 제도다.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가 무색하게 현장에서 교육부의 강력한 무전공제 확대 의지에 직면해 심지어 예술계 대학, 직업교육 중심 대학들조차 무전공제 도입의 시늉이라도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조 섞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경학과, 조리학과, 보철학과와 같은 직업교육 중심 학과의 경우 무전공 제도를 통해 전공 선택을 미루는 것은 직업교육 학과에 필수적인 현장 실습과 기술 습득을 지연시키고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실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렇듯 대학의 유형이나 특성에 관계없이 무전공 제도를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획일적으로 밀어부치는 정부의 추진 방식은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2618호에 계속)  
뉴스1

독자기고

### 대구경북특별시, 위기 넘어 도약의 길로



권황  
㈜유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게 된 것이다.

지난 1960년대 도시개발과 경제성장이 시작된 이래 우리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지난 65년이 중앙정부 주도의 시간이었다면 대구경북행정통합 이후는 우리(지역)의 시간이 될 것이다.

행정통합을 하게되면 다양한 개발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이양받을 수 있게 돼 특별시가 주체적으로 공간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대구와 경북에 걸쳐있는 514km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대구 399.88km, 경북 114.73km)의 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이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K-2후적지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해 K-2후적지와 신서혁신도시를 연계하고 연결하는 산업발전축 형성 등 새로운 공간혁신과 산업혁신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산지·농지전용 허가 등의 권한 이양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역개발의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불투명했던 사업들의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 개발사업의 대상들이 산지(산림), 농지 등으로 확대되고 다양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민의 적극적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민간부문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지역개발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발사업은 비용절감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 특히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추진의 신속성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일부분 제거할 수 있게 해준다. 향후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의 경우 44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민간영역에서의 사업 참여와 투자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글로벌미래특구 등 획기적 제도의 도입은 조세,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자유로운 기업 경영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에이시티, K-2후적지 개발, 첨단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와 국내 대기업의 유치를 촉진해 특별시가 경제 규모 1천500조원의 한반도 제2의 경제축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기회를 살려 지역인 모두가 참여하고 화합해 대구경북특별시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나가야 하는 골든타임이 도래하고 있다.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구경북이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

### 반도체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경쟁력 높여야

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기업에 직접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번 회기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엔 업계의 숙원이자 최대 쟁점이었던 보조금 지급 근거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규제 예외 조항이 전격적으로 포함됐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업황이 밝지 않은 데 따른 당정의 위기감이 특별법에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다. 대표 발의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다.

이번 국회 들어 국민의힘에선 고동진, 송석준, 박수영 의원이 각각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이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의견을 조율해 왔다.

특별법엔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근거가 담겼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그간 보조금 지급 명분화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는데 논의 끝에 담기로 했다.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필요성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고동진 의원이 강조해 온 내용이기도 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만의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8조원을 투자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4조원을 지원한 것으로 안다"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인센티브가 되고 있으니 우리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젠션'도 특별법에 담긴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이들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미국의 경우 연봉 10만달러 이상의 사무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업무 성과를 토대로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젠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혁신지원단을 설치할 근거가 포함됐다. 반도체 보조금과 화이트칼라 이그젠션은 반도체 업계의 숙원과도 같은 조항들이다. 각각 대기업 특혜 논란과 노조의 반대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당정은 특별법에 모두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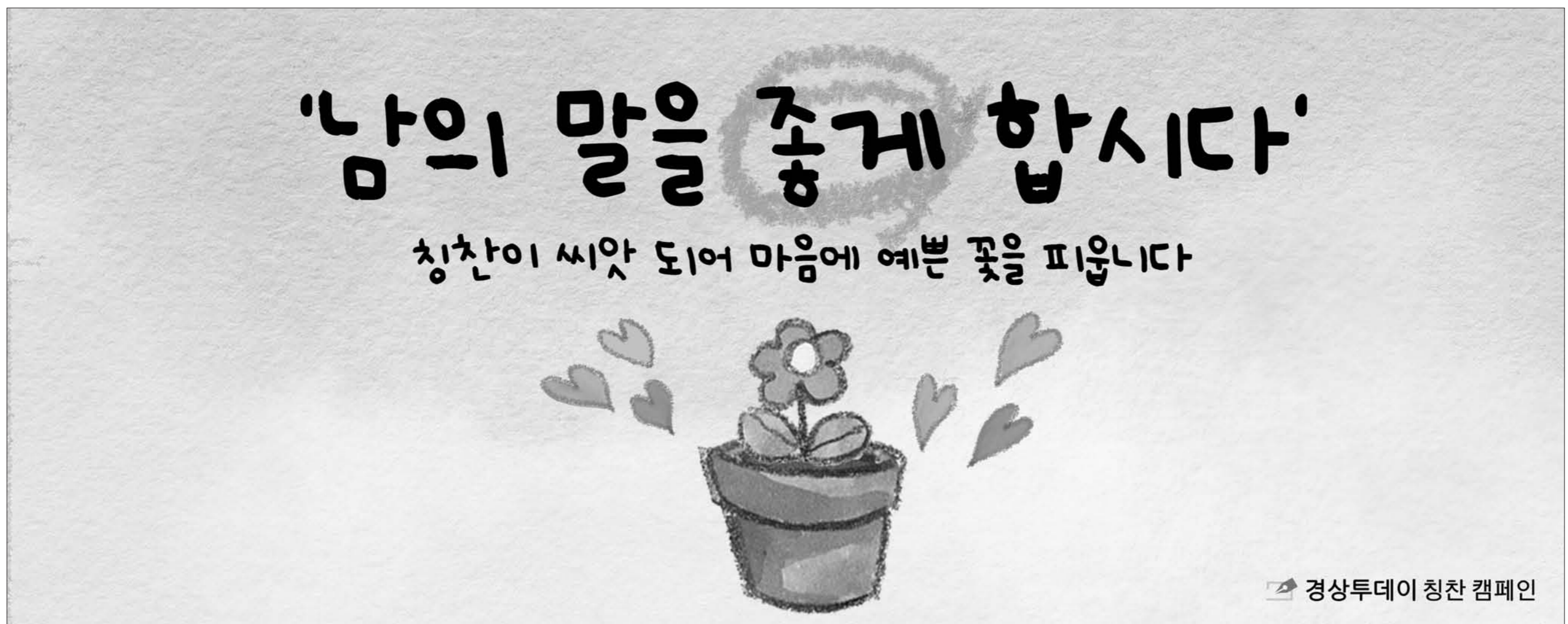
당정의 전격 합의 배경으로는 불확실한 반도체 업황이 꼽힌다. 지난 9월 기준 반도체 생산 증가세가 14개월 만에 꺾이는 등 업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유럽·인도까지 공장 건설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 하는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해 반도체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말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킨 만큼 직접 보조금에 미온적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제1호 성과물로 꼭 내놓기를 바란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00032 http://www.gyeongs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체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정책부	<구내>1008	F A X (054)748-3363
구독·광고·재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양정로 255(동천동) 덕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당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월성중·경주정보고 총동창회

# 회장배 동문골프대회

2024.11.12(화) 12:00

시상식 | 19:00

장소 | 경주 신라CC



대회장 이승협



주최

월성중, 경주정보(상업)고 총동창회

주관

수송골프회